

피난 생활 보고 · 避難生活報告 65

헌당식을 목전에 두고

지진 재해로부터 2 년과 1 개월이 경과한 4 월 11 일에 오사카(大阪)에서 신칸센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

저희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. 교회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결혼식이 두차례 있었고 추도예배가 두차례 있었습니다. 그리고 300 명을 초대 한 콘서트도 했습니다. 준공되기 전부터 벌써 요긴하게 쓰인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1 개월 후에야 헌당식을 하게됩니다. 출석은 400 명이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많은 분들이 교회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? 지진 재해 속에서 태어난 이 교회는 반년분의 일을 벌써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
언젠가 '날개 교회'의 그림책을 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전에 우선 지진 재해 중에 죽은 애견 파비의 지진 재해 체험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'유랑의 교회'의 최종판으로서 '새로운 여행길'의 출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헌당식과 함께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.

지진 재해로부터 2 년 2 개월을 지내고 맞이하는 헌당식이 우선 한 단락을 매듭짓는 것이 되겠는지요?

블로그에 게재할 문장을 입력할 힘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. 오늘이 벌써 4 월 30 일입니다. 지금 저는 신칸센으로 나고야(名古屋)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이번 달 11 일에 오사카(발)-후쿠오카(행) 신칸센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지친 숨이 턱에 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(4 월 30 일, 신칸센에서)